

# 항일운동·한국전쟁 질곡의 현대사 품고 한국문학 産室로



곡성군 고달면 천마산에서 바라본 섬진강의 일몰 장면.

〈곡성군청 제공〉

“가문 섬진강을 따라가며 보라  
 퍼 가도 퍼 가도 전라도 싹뿔줄 같은  
 개울물들이 끊기지 않고 모여 흐르며  
 섬진강을 따라가며 보라  
 섬진강물이 어디 몇 높이 달려들어 퍼낸다  
 고 마를 강물이더냐고” (김용택 '섬진강' 中)

## 맞 올리는 江 동서통합시대 화합의 江 섬진강

6 문학



김용택이 자신의 시 '섬진강'에서 말했듯, 섬진강은 한국인에게 위안을 안겨 준 마르지 않는 '정서의 강'이다. 몇 높이가 달려들어 퍼내도 마르지 않을 섬진강은 굽이굽이 흐르면서 슬한 시인과 소설가를 품어냈다. 그렇게 탄생한 '토지' 등은 한국 문학 대표작으로 자리 잡았다.

또 고을마다 스토리텔링의 근간이 되는 설화도 전해져오고 있다. 할머니의 입을 통해 전해오던 이들 설화는 동서통합시대의 뼈대가 되는 '문화 산업' 육성의 소중한 자산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◇이야기의 보고=섬진강에는 유독 두꺼비와 관련된 설화가 많다. 두꺼비 '섬'(蟾)자를 쓰는 탓도 있지만 과거 물길을 따라 왜구가 침탈하기도 하는 과정에 두꺼비가 울었다는 등 슬한 두꺼비 설화가 전해져 오고 있다.

고려 우왕 11년(1385년)에 왜구가 섬진강 하구에 침입했을 때 수십만 마리의 두꺼비떼가 울부짖어 왜구가 섬진강 하구로 도망갔다고 한다. 이때부터 강 이름을 섬진강이라고 불렀다고 전해온다.

또 왜구가 쳐들어와 우리 군사들이 쫓겨서 섬진나루에 이르러보니 건너야 할 배가 없었다. 그때 두꺼비 수백만 마리가 강에서 떠올라 다리를 놓아주고, 우리 군사들이 다 건너 뒤 왜구가 건너려고 하자 물속으로 사라졌다는 이야기도 전해오고 있다.

섬진강에 폭 5m 가량의 바위가 있는데 생김새가 두꺼비가 헤엄을 치는 모습을 하고 있어 섬진강이라는 이름이 생겼다는 설화도 있다. 주민들은 이 두꺼비 바위가 물에 완전히 잠기면

### 박경리 '토지' 무대 하동 평사리

### 조정래 '태백산맥' 배경 지리산

### 김용택, 섬진강 연작시 등 퍼내

마을이 부유해 진다고 믿고 있다고 한다.

은혜 깊은 두꺼비 설화도 섬진강의 대표 이야기다. 옛날 한 처녀가 나무터에서 흥수에 떠내려가는 두꺼비를 구해줬는데, 나중에 그 처녀가 물에 빠져 곤경에 처하자 두꺼비가 처녀를 구한 후 지쳐 숨졌다다는 것이다.

이 밖에 국내 대부분 강변에 깃들어 있는 오누이의 근친상간을 담은 '달래강' 설화도 섬진강 일대에 전해져 오고 있다.

◇문화의 산실=섬진강의 대표 문학으로는 박경리의 대하소설 '토지'와 김용택의 연작시 '섬진강'을 꼽을 수 있다. 또 인근의 지리산을 무대로 한 조정래의 '태백산맥'도 현대사의 눈물과 한이 고스란히 담긴 섬진강 덕을 봐 탄생했다고 할 수 있겠다.

'토지'의 무대는 하동의 평사리다. 집필 기간 25년에 장장 16권에 달하는 이 대하소설은 한국 현대 문학을 대표하는 작품이다. 1969년 현대문학에 처음 연재된 뒤 1972년 문학사상, 1977년 독서생활과 한국문학, 1983년 정경문화, 1987년 월간 경향,

1992년 문화일보로 지면을 옮겨가는 우여곡절 끝에 5부 21권의 기념비적인 대작 '토지'가 완성됐다.

이 소설은 하동의 평사리에서 5대째 살고 있는 만석꾼 최참판댁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. 경술국치, 간도 이민, 3·1 운동, 광주학생운동, 항일운동 등 굴곡 많은 한국 현대사가 녹아있다.

특히 박경리 작가는 '토지'의 배경인 만주 용정과 평사리를 한 번도 가보지 않고 집필을 시작했다. 소설을 쓰고 난 뒤에야 용정과 평사리를 갔던 그는 눈앞에 펼쳐진 풍경이 소설에 묘사한 모습과 너무 똑같아 "내가 쓴 것이 아니고 누가 시켜서 썼다"고 말할 정도로 놀라워 했다고 한다.

현재 약양면사무소를 지나면 조부갯집이라고 불리는 조씨 고가가 나온다. 실제 최참판댁의 모델이 되었다는 곳이다.

섬진강의 아름다움은 현대시의 한 획을 그은 연작시 '섬진강'을 탄생시켰다. 섬진강 시인으로 불리는 김용택은 1982년에 여러 시인의 작품을 묶은 '꺼지지 않는 햇볕'에 '섬진강' 연작시 네 편을 발표하면서 이름을 알렸다.

여기에 실린 글이 바로 '퍼 가도 퍼 가도 전라도 싹뿔줄 같은'이라는 절창을 만들어 낸 섬진강 연작시였다.

김용택은 또 섬진강 연작시 뿐 아니라 '섬진강 남도 오백리' '진메 마을 진메 사람들' '김용택의 섬진강 이야기' 등 섬진강을 배경으로 한 다양한 책들을 펴냈다.

또 하동포구 팥실 리가 시작되는 화계장터를 배경으로 하는 김동리의 단편 '역마'도 섬진강이 탄생시킨 명작 중 하나다.

/오광복기자 kroh@kwangju.co.kr

## 고품격 맞춤 웨딩전문 호텔 무등파크

국립공원 무등산을 품에 안은 休·安·林의 궁전호텔 무등파크가 여러분을 VIP로 초대합니다.

신년웨딩 큰잔치 2014년 2~3월 중 뷔페 28,000부터(부가세 별도)

웨딩 큰잔치 메뉴(200분 이상) 스테이크 33,000부터(부가세 별도)

무료제공 특전 : 객실 2실, 꽃길, 페백실, 음료, 주류 일반웨딩 200분 대형웨딩 1000분 수용가능

★파격조건 회원 모집중★  
 히노끼 천연 온천탕/시우나·헬스이용권  
 (개인가족/법인)

호텔무등파크 문의 062)226-0011 예약실 062)221-2700

